

<글말교실 소감문>

처음 글말특강을 듣기로 결심한 건 비교과 활동 시간을 채워 플러스 알파 2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였다. '강의를 듣고 소감문만 간략히 작성하면 된다'는 말에 혹하여 K-STARTRACK에서 신청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속물적 태도로 접한 특강이지만 수강한 뒤 글말특강은 내게 소통의 수단에 대한 소중한 성찰, 그리고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글말특강은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각 교수님 당 1회차씩 총 10회차로 구성되며, 각 회차마다 글말에 대한 테마를 선정해 강의가 진행된다. 처음엔 글쓰기에 대한 강의가 필수 교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굳이 비슷한 내용을 특강의 형식으로 다시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이 강의는 필수 교과인 "글쓰기"와 2가지의 차별점을 가진다.

먼저, 글말특강의 내용은 글쓰기의 '기술'을 포함한다. 1학년 필수과목으로 접한 강의 '글쓰기'는 글을 써내고 그것을 담당 교수님께서 피드백해주는 과정이 중심이었다면, 글말특강은 다소 지엽적인 부분인 맞춤법, 스킬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를 체득하는 것은 수강자의 몫이지만, 글쓰기의 스킬을 학습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긴다는 순기능이 작용하기도 한다. 다른 한가지는 글말특강이라는 특강의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말'에 대한 내용도 강의에 녹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글 뿐 아니라 말, 발표나 대화 등을 통해서도 상대에게 생각을 전달한다. 글말특강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발표 때 덜 떠는 법, 대화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이는 글말특강이 영상 매체의 중요성이 대두된 언택트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글과 말에 대한 많은 내용을 1시간 남짓의 강의들 10번으로 압축하다 보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90분 안쪽으로 설명을 마쳐야 했기에 깊은 내용을 듣기는 어려웠다.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회차별로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글말특강의 특성상, 강의 시간을 좀 더 늘린다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한 특강이 될 것 같다. 또 강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편의성과 접근성을 좀 더 향상시킬 여지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한 회차에 참여하면 비교과 활동 1시간이 인정된다. 그런데 강의의 수강 신청이 회차마다 열림에도, 강의 한 회차만 신청해도 모든 회차의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교과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아리송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의 편의를 위해 조금만 수정을 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특강이 될 것이다. 또한, 글말특강의 공지가 학교 홈페이지에만 올라온다. 물론 학교 홈페이지를 잘 찾아본 학우들은 이 특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활발한 홍보까지 가미된다면 더 많은 학우들이 글말특강을 수강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2년 여간 이어지고 있다. 학우들과 교수님들 모두 줌, 혹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며 교육권이 이전에 비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때, 글말특강 같은 양질의 특강은 코로나 19 시기를 견디고 있는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 콘텐츠다. 가뭄의 단비처럼 내려온 글말특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번창하여 국

민대학교의 대표 특강이 되기를 기대한다.